



제 173 호

평화의 도구

2008년 1월

영적보조자 : 이규성 바오로 sfo 714-537-1974
회 장 : 리병재 힐라리오 sfo 714-879-8679
부회장 : 오수원 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근숙 율리아 sfo 714-875-1760
회 계 : 박용원 야고보 sfo 562-924-5840
양 성 : 이세홍 바오로 sfo 562-860-6930
사도직 : 이용석 안토니오 sfo 714-739-4226

◆ 월례회: 매월 3째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형제회 소식

▶ 월례회 날짜 변경

2008년1월부터 월례회 모임이 매월 3째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 워커 무숙자 봉사

가톨릭워커 내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무숙자 봉사는 보류합니다.

▶ 회계 정산

2007년도 형제회 회계 정산을 위하여 그동안 밀린 회비를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신서약자는 상급형제회에 보낼 Fairshare (\$40씩)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컵 준비

2월 17일(일) 월례회부터는 각자의 컵을 가지고 오십시오. 컵은 따로 준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차기 총회및 평의회원 선거

형제회를 이끌어 갈 차기 평의회원 선거에 회원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추천하실 분은 김영배 요한 형제님께 연락하십시오. 저녁7시 이후 714-491-1232

▶ 구역 재편성

2008년1월부터 구역이 재편성 되었으며 매월 월례회 식사준비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에는 제1구역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 신부님 월례회 방문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지난 12월 23일(일) 월례회를 방문하시고 강의및 미사를 집전하여 주셨습니다.

1월20일(일) 월례회에서는 김재섭 비안네 신부님께서 강의및 미사를 하십니다.

▶ 미라희비 송금

2007년도 미라희비 \$1900을 한국 성심원으로 송금하였으며 후원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제회 총회및 평의회원 선거

08년 3월 16일(일) 셋째 일요일

오후12시30분 성토마스성당

OC형제회 15년사 출판 기념

08년 4월 20일(일) 셋째 일요일

오후12시30분 성토마스성당



수고하셨습니다 !!

1월 식사준비

제1구역

김상숙 아가다
장재희 아네스
서경자 세실리아
조영희 마리아
장정지 요안나
원영금 마리아나
서윤순 루피나

▶ 2월은 제 2구역



HAPPY BIRTHDAY!

생일을 축하합니다

1월5일 이윤규 루시아
1월5일 윤성민도미니코
1월6일 백호명 프란치스코
1월8일 이옥수 아네스
1월9일 이인숙 마리아
1월12일 리병재 힐라리오
1월13일 김창순 데레사
1월19일 원영금 마리아나
1월21일 음광인 아오스당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권고

깊은 심리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이 권고는 영혼을 식별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해 준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난한 자 혹은 겸손한 자라는 마음가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갖가지 덕행의 행위를 습관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이 실제로 마음으로 가난하고 정결하고 단순

하고 순종하는 자, 즉 영적으로 참된 작은 형제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 권고는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을 지도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 무르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형제들에게 한 조언의 말씀들이다.

인 내 (권고 13)

“평화의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느님

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5,3)

하느님의 종은 일이 뜻대로 잘 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겸손을 지니고 있는지를 본인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받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할 때 그가 보여 주는 그 정도의 인내심과 겸손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이상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와 나눔

저는 2006년 4월을 기점으로 St. Boniface 성당내 (120 N. Janss St., Anaheim) 에 주소를 가진 성빈첸시오 (St. Vincent De Paul Service Center) 봉사 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 센터는 주 5일 (월 - 금) 하기 Schedule 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 목, 금요일은 오후 5시-6시 사이에 Sandwich 와 음료수를 포함한 간식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우리 성토마스 성당 교우 2명(재속회 회원 1명과, 신자 1명) 이 봉사 하고 있습니다. 이 3일간의 저녁 식사제공 시간대와 병행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Voucher (증서) 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 소득자들이 필요할 때 증서 (Voucher) 를 가지고 Motel, Gas, Haircut, Pharmacy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외 매주 월 - 금 오전 9시부터 12시와 오후 1시부터 3시로 나누어 저 소득자들에게 음식 재료 (Can Food, 야채, 빵, 기타)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 센터에서 지급되는 모든 물품과 헌금은 여러 곳에서 기증 후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 성토마스 본당에서도 2007년 4월 부활절 불우이웃 돕기 특별헌금 \$4,300.00 불을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 St. Boniface 성당에 처음왔을 때 성당 크기로 보아서는 주차장이 적다는 느낌이 들어 책임있는 분에게 문의한 바, 신자수는 약 15,000 여명이 되나 실제 나오는 신자는 약 7-8 천명 정도, 이 중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미사 참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봉사하게된 동기는 본당 김 알렉스 신부님이 저를 불러, 앞으로 우리도 새성전이 신축되면 최소의 규모로라도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도와 줄 수 있는 곳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저에게 이 빈첸시오 봉사센터에 가서 좀 배워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명하였고 열심히 일하며 배웠으며, 성토마스 성당에 다니는 교우 한 분을 만나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의 건의로 우리의 고유 음식 (불고기)을 월 1 회 정도 제공하면 어떨까 하여, 이 봉사 센터의 책임자와 상의하여, 월 1 회 매월 둘째

목요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8 명의 봉사자로 구성되어 재료비 조달은 봉사하는 분들이 월 20 불씩을 내서 한국 불고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매월 이 날의 급식자는 100 - 120 명이 평균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Donation 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저축하였다가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증을 하고 있으며, 계속 봉사자들이 부담하여 한국의 일미 불고기 덮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 "봉사와 나눔" 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봉사와 나눔은 형제간의 남매지간 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숙자들에게 봉사를 할 때 줄서서 기다리는 그 분들의 얼굴이 예수님으로 보일 때 "너희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대접을 하여 주는 것이 마치 내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성서 말씀이 떠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프란치스코인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적인 봉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일 차별적인 봉사를 하였다면 우리는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입니다. 영하 20-30 도가 얼마나 추워인지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맨발로 밀창이 다 달아 없어진 신발을 걸치고 빙판을 걸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육식이란 말만 들었고, 개구리 다리는 고급일등 요리이고, 들쥐 한마리를 잡아 구어 먹을수 있다면 일등 영양식이라는 그사람들 실감이 나시는지요? 삶은 계란을 한번 실컷 먹어 보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어린 청소년의 간절한 소망,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험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사람들은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분발하십시오. 봉사하고 나눔의 생활로 진정한 프란치스코인이 됩시다.



인생의 진리탐, 건설 해야할 우리
일초 일각을 다투어서

- 이용석 안토니오 SFO -

행

사



프란치스코 선교구호회 후원회원 모임

지난 12월23일(일) 월례회 후에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모시고 김화성 바오로형제님 자택에서 프란치스코 선교구호회 후원회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신부님의 활동 상황및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발전과 성장에 관하여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신부님께서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기에 청소년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원하시는 신부님!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